中國語文學 第84輯(2020. 8) 325-341쪽

대학생의 문화간 감수성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 잠재프로파일분석 적용

김형란* · 오현주**

<目 次>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3. 분석방법 및 분석절차
Ⅲ. 연구결과
1.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의 수
2. 계층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Ⅳ. 논 의

Ⅰ. 서 론

필자는 중국문화수업 관련 선행연구에서 문화간 감수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씽킹 교수법이 적용가능한지 모색하였다. 해당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문화 관련 교양수업에서 표피적인 중국 문화요소(건축물, 미술, 문학, 음식, 사물, 민속, 상투적 제스처, 행정 등)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학생이 제출한 과제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대학생들이 중국에 대한 공포와 부정적 시각,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런 시각과 감정이 형성된 원인을 상호 문화간 공감 부족으로 파악하였다. 중국문화수업에서 단순히 중국문화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 전임연구원 : 제1저자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사 : 교신저자

www.kci.go.kr

를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 상호 문화간 공감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문화간 감수성 유형을 좀 더 세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국문화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 변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교육내용을 선정하거나 매체 중심(노래, 영화, 문학작품, 광고, 멀티미디어 등)의 수업을 설계한 연구가 많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간 감수성에 관한 양적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변인중심적 연구방법을 쓴다. 표본이 동질하다는 가정 아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모든 대상자에게 일반화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예를 들어, 학생의 문화간 감수성 함양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하려면 학습분위기, 교사역량,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수법 등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만약 학습분위기, 교수법은 유의하고, 교사역량,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일반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전체 대학생 집단의 평균 수치를 살펴보면서 분석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탐색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화간 감수성은 성격처럼 고정된 개인의 특질이라기보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변화 가능한 역동적 개념이기에 질적으로 다른 패턴을 갖는 하위 집단이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의 경우 집단을 분류할 때, 개인 간 차이에 초점을 두고 하위 프로파일 집단을 응답 패턴으로 추정한다. 즉, 문항에 대한 응답 반응의 패턴이 같은 응답자를 하나의 프로파일로 묶고, 패턴이 다른 응답자들을 다른 패턴으로 분류하며 각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다[1]. 이러한 프로파일 유형은 여러 변인에 대해 동일한 구성이나 점수 패턴을 공유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문화간 감수성 수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고, 이러한 각 집단의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

1) Collins, L. M. & Lanza, S. T.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 York : Wiley, 718, 2010.

www.kci.go.kr

지 탐색할 수 있어 이론적 실증적 함의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문화간 감수성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탐색해보고, 각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문화간 감수성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프로파일은 몇 개이며, 형태는 각각 어떠한가?

둘째, 문화간 감수성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은 2020년 기준 경기 및 영남지역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대학 교강사가 설문실시와 수집에 관련된 안내 및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뒤,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231명 응답자 중 전공, 문화관련 교육경험, 해외연수 등 일반적 특성에 답변하지 않은 5명을 제외한 226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226명 중 남성은 78명(34.5%), 여성은 148명(65.5%)이며, 전공별로 인문 및 사회과학계열은 144명(63.7%), 자연과학 및 이공계열은 74명(32.7%), 예체능계열은 8명(3.5%)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문화간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 ISS)

Chen과 Starosta[2)]가 미국과 독일 등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www.kci.go.kr

Kim[3]이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문화간 감수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ISS는 총 24문항으로 참여도(7문항), 존중도(6문항), 자신도(5문항), 향유도(3문항), 관심도(3문항) 총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해석의 편의를 위해 부정형 문항에 대해서 역코딩하였다. 해당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간 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24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890이고, 하위영역별 Cronbach's α는 상호작용 참여도 .702, 문화차이존중도 .746, 상호작용 자신도 .847, 상호작용 향유도 .526, 상호작용 관심도 .308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관심도 문항 중 19번 문항은 해당 문항 삭제시 신뢰도가 .615로 올라가 문항내용 해석 시 해당 문항을 제외시켰다.

〈표 1〉 문화간 감수성 관련 문항

	문항내용	Cronbach's α
상호작용 참여도	1,11,13,21,@22,23,24	.702
문화차이 존중도	@2,@7,8,16,@18,@20	.746
상호작용 자신도	3,@4,5,6,10	.847
상호작용 향유도	@9,12,@15	.526
상호작용 관심도	14,17,19	.308

2) Chen, G. M. & Starosta, W. J.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sitivity scale.* Paper presented at 86th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Seattle, WA. 2000. 1-22.

3) Kim, K-J. *Examining the afective domain in colage students'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 Korea: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motivation,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English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UA, 2003.

www.kci.go.kr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검토를 통해 문화간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전공, 문화 관련 교육경험, 해외연수, 다문화 가정 및 지인 존재여부를 독립변수(predictor variable)로 사용하였다. 성별, 해외연수, 문화 관련 교육경험, 다문화 가정 및 지인 존재 여부는 더미 코딩하였다.

〈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 설명

	변수	변수처리
1	성별	0=남자, 1=여성
2	전공	0=인문/사회과학 계열, 1=자연과학/공계열 2=예체능
3	해외연수	0=있다, 1=없다.
4	문화 관련 교육경험	0=있다, 1=없다.
5	다문화가정, 지인여부	0=있다, 1=없다.

3. 분석방법 및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문화간 감수성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구분하고 각 프로파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4개의 문화간 감수성 측정문항의 응답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수를 증가시키면서 아카이케 정보지수(AIC), 베이지언 정보지수(BIC), 수정된 베이지안 정보지수(ABIC), 로-멘델-루비 우도비 검증(LMR LRT)와 모수적 부트스트랩 최대우도 비율 검증(Parametric Bootstrap likelihood ratiotes)등과 같은 통계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정보지수가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인데, AIC와 BIC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BIC가 AIC보다 더 적절하다는 권고를 준수하였다[4]. 모형비교 검증방법인

www.kci.go.kr

LMR LRT와 BLRT의 경우, p-value가 유의하지 않다면 (k-1)개의 잠재집단과 k개의 잠재집단의 설명력이 같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된다. 간명성의 원리에 따라 (k-1)개와 k개의 설명력이 같다면, k-1개의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p값(p-value)이 유의하다면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였다.

둘째,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Entropy값을 확인하였다. Entropy는 1에 가깝고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대략 0.6이면 중간수준, 0.8이면 높은 수준이다[5]. 본 연구에서는 계층별 사례 수의 비율과 집단의 구조적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명력이 높은 계층의 수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셋째, 위 과정을 통해 선정된 프로파일의 사후소속확률(posterior probabilities), 응답 확률, 문항 내용 등을 토대로 각 프로파일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프로파일 구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Mplus 8.3프로그램을 통해 3단계 추정방법 중 R3STEP방법을 사용하였다[6]. 1단계는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없는 기본 혼합모형을 추정한다. 2단계는 각 개인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 프로파일을 추정한다. 3단계는 분류오류(classification error)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성별, 전공, 문화 관련 교육경험, 해외연수, 다문화 가정 및 지인 존재여부)를 보조변수(auxiliary)로하여 문화간 감수성의 평균과 분산이 잠재프로파일별로 다르다는 가정을 검증한다.

4) Nylund, K. L., Asparouhov, T., and Muthén, B. O.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2007: 535-569.

5) Clark, S. L. & Muthén, B.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Retrieved from http://statmodel.com/download/relatinglca.pdf. 2009.

6) Asparouhov, T. & Muthén, B. "Auxil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2014: 329-341.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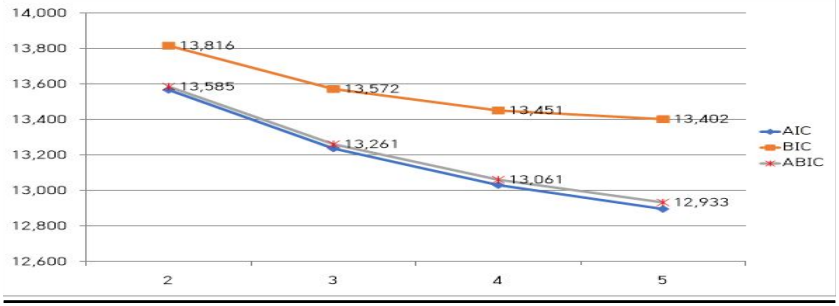
Ⅲ. 연구결과

1.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의 수

국내 대학생의 문화간 감수성 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집단의 수를 1개씩 증가시키면서 정보 적합도 지수(AIC, BIC, ABIC), 모형 비교 검증값(LMR-LRT, BLRT), Entrop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정보지수, 모형 비교검증과 분류의 질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loglikelihood		-6653.073	-6520.511	-6392.54	-6300.316
정보 적합도 지수	AIC	13567.268	13237.023	13031.08	12896.63
	BIC	13816.967	13572.235	13451.806	13402.871
	adjusted BIC	13585.612	13261.649	13061.98	12933.823
모형 비교 검증	LMR LRT	0.0056	0.4215	0.4045	0.5009
	BLRT	0.0000	0.0000	0.0000	0.0000
분류의 질	Entropy	0.913	0.909	0.916	0.933
분류율(%)	class 1	51.3	21.2	24	10
	class 2	48.6	41.5	11	19
	class 3		37.6	39	40
	class 4			24	26
	class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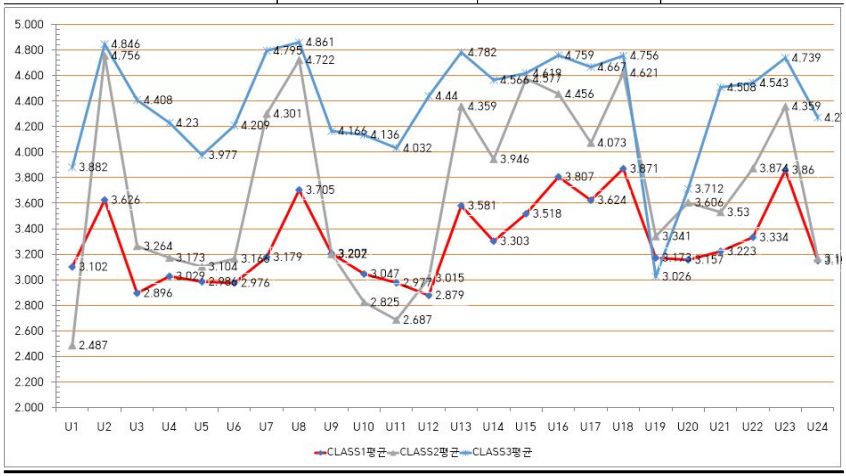


www.kci.go.kr

AIC, BIC, ABIC 값은 잠재집단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작은 값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 비교 검증, Entropy,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선정하였다. 5개의 유형 분류에서 가장 적은 수의 잠재프로파일의 비율이 5%미만이면 우연히 발생한 잠재프로파일일 수 있고[7] 모형비교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K-1)개의 모형을 지지하고 해석 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표 4〉 문화간 감수성 유형에 따른 사후확률표 및 문항별 평균응답

	1	2	3
집단 1에 속할 확률	0.971	0.029	0.000
집단 2에 속할 확률	0.027	0.946	0.027
집단 3에 속할 확률	0.000	0.028	0.972



모형을 비교하는 검증에서 LMR-LRT결과값은 3유형과 4유형일 때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수적 부트스트랩 값은 유의한 것

7) Berlin, Williams, & Parra.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2014): 174-187.

www.kci.go.kr

으로 나타났다. 집단분류율과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3개의 잠재집단을 선정하였다. 계층 수가 3개일 경우 Entropy의 지수(0.909)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집단 유형에 대한 조건부 사후확률은 〈표 4〉와 같다. 사후 소속확률은 잠재집단으로 분류된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집단분류가 정확하다는 뜻이다. 대체로 0.7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세 집단의 사후소속확률값(posterior probabilities)은 대략 .94~.97 수준으로 집단 분류가 양호하였다.

각 잠재프로파일이 어떠한 유형을 대변하고 있는지 문항내용을 바탕으로 문화간 감수성 수준에 관한 질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세 집단을 '적극형(Class 3)'와 '중도형(Class 2)' '소극형(Class 1)'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표본의 37.6%가 적극형으로, 41.5%가 중도형으로 21.2%가 소극형으로 구분되었다.

소극형(class 1)의 응답 패턴을 살펴보면, 상호작용 자신도 문항(3,@4,5,6,10)과 상호작용 향유도 문항(9,12,15)에서 다른 유형에 속한 학생과 격차를 보였다. 타 문화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일이나 대화는 꺼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타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상황에 민감한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중도형(class 2)의 응답 패턴을 살펴보면,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나 여가활동을 함께한다',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그 나라의 말로 대화하는 것이 적극적인 편이다'와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한다'에서 소극형보다 응답 평균이 낮지만, 상호문화 존중에 관한 문항인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한다',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의 응답을 보면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이 매우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사교적이진 않지만,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가 높은 성향을 가진 집단임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적극형(class3)의 응답패턴을 살펴보면, 참여도(1,11,13,21,@22,23,24)와 존중도(@2,@7,8,16,@18,@20)에서 다른 유형에 속한 학생과 격차를 보였다. 이 문항의 내용을 분석하면 타문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그들의 문화와 행동방식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과 교류하는 등 사교적임을 알 수 있다.

2. 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3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된 최종모형에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어떤 변수가 어떤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일반적 특성에 속하는 성별, 문화 관련 교육경험, 다문화 가정 혹은 지인 여부, 해외연수, 전공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조건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잠재프로파일 분류 결정요인의 다항로짓계수, 승산비, 유의도

참조집단	적극형				중도형	
연구집단	소극형		중도형		소극형	
	로짓 (SE)	승산비 (S.E)	로짓 (SE)	승산비 (S.E)	로짓 (SE)	승산비 (S.E)
성별	−0.58 (0.42)	0.55 (0.23)	0.13 (0.37)	1.14 (0.43)	−0.72 (0.41)	0.48 (0.20)
문화관련 교육경험	1.29* (0.49)	3.46 (1.81)	0.82* (0.37)	2.28 (0.86)	0.46 (0.52)	1.59 (0.83)
다문화 가정 및 지인	0.50 (0.45)	1.65 (0.74)	0.78 (0.42)	2.19 (0.92)	−0.28 (0.50)	0.75 (0.37)
해외연수	0.69 (0.49)	2.00 (0.98)	1.16* (0.42)	3.19 (1.34)	−0.46 (0.43)	0.62 (0.27)
전공	0.77 (0.186)	1.08 (0.29)	0.11 (0.21)	1.11 (0.23)	−0.03 (0.28)	0.96 (0.27)

*주: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www.kci.go.kr

문화간 감수성 잠재프로파일 집단차를 예측하는 변인을 분석해보면, 적극형 집단에 비해 중도형과 소극형에 소속될 확률을 높이는 독립변수로 '성별'과 '다문화 가정 혹은 지인의 여부', '전공'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문화 관련 교육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없을 경우, 적극형보다 소극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3.46배 증가하고, 중도형에 속할 확률이 2.2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 경험의 경우, 적극형 집단에 비해 중도형에 소속될 확률이 3.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문화간 감수성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구분하였다. 또한 형태의 집단차를 예측하는 변인을 검증하여 학술적, 실증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이 문화간 감수성 하위요인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표본의 37.6%가 적극형, 41.5%가 중도형, 21.2%가 소극형으로 구분되었다. 문항내용에 근거하여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적극형은 타문화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과 교류하는 집단이다. 중도형은 사교적이진 않지만,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가 높은 집단이다. 소극형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만 직접 만나는 일이나 대화는 꺼리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둘째, 3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성별, 문화 관련 교육경험, 해외연수, 다문화 가정 및 지인과의 접촉 경험, 전공 중 집단 예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문화 관련 교육경험과 해외경험이었다. 문화 관련 교육경험이 없을수록 중도형 혹은 소극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해외연수가 없을수록 중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www.kci.go.kr

대학 문화수업이나 외국어 수업에서 문화간 감수성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문화간 감수성이 질적으로 다른 패턴을 갖는 하위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로써 이전의 연구가 주로 하나의 동질적 집단을 가정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중국문화수업설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소극형인 집단이 중도형이나 적극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 문화에 관한 교육경험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문화 관련 교육경험은 김형란, 오현주, 박민수, 이인택(2019), Byram(2018), 郑晓红(2018) 등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 문화에 대한 결과론적 해석이나 지식이 아니라 '문화간 충돌 상황'을 제시하고, 관찰, 공감, 성찰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통합영어수업이 중학생들의 문화간 감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전미진, 2019)와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대학의 중국 언어학, 중국문학, 중국학 등 세부전공에 따라 분리된 각각의 강좌보다 언어와 문화를 융합한 수업이 필요하다.

둘째, 중도형 집단과 적극형 집단을 나누는 변인은 해외연수였다. 중도형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가 높은 성향의 집단이지만 적극형에 비해 타 문화권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일을 꺼리는 집단이다. 이런 중도형 집단으로 분류된 학생의 경우, 문화 관련 수업에서 '해외연수'처럼 타 문화권 사람들과 대화하는 활동과 그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중국 문화에 대한 표피적 지식 측면(건축물, 미술, 문학, 음식, 사물, 민속, 상투적 몸짓, 행정 등)이 중심이 되는 교과수업보다 중국인과 함께 생활하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공동생활공간(국제교류관, 기숙사)의 학생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소극형과 중도형 집단에 속한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종래의 중국 문화교육 수업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은 매체를 활용한 연구나 대학의 강좌별(전공, 교양), 수준별(초급, 중급, 고급)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보다 문화간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학

www.kci.go.kr

생 개인별·유형별 접근과 그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김형란·오현주·박민수·이인택, 〈중국문화수업에서의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적용 원리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2019.

전미진. ≪언어와 문화의 통합수업이 중학생의 문화간 감수성과 영어 학습의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9.

郑晓红, <跨文化交际视角下的教材评价研究——与Michael Byram教授的学术对话及其启示>, ≪外语界≫ 02期, 2018.

Asparouhov, T. & Muthén, B. “Auxil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2014).

Berlin, Williams, & Parra.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2014).

Byram, 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7.

Clark, S. L. & Muthén, B.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Retrieved from http://statmodel.com/download/relatinglca.pdf. 2009.

Chen, G. M. & Starosta, W. J.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sitivity scale*. Paper presented at 86th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Seattle, WA. 2000.

Collins, L. M. and Lanza, S. T.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www.kci.go.kr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 York: Wiley, 718, 2010.

Kim, K-J. *Examining the afective domain in colage students'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 Korea: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motivation,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English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UA. 2003.

Nylund, K. L., Asparouhov, T., and Muthén, B. O.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 4, (2007).

<부록>

※ Mplus 8.3 3단계 추정 syntax ※

```
TITLE: LPA_CLASS(3)_R3STEP
DATA: FILE IS ISS.DAT;
VARIABLE: NAMES ARE gender edu ft grobal major u1-u24;
          USEVARIABLES ARE u1-u24;
          CLASSES = C(3);
          AUXILIARY=(R3STEP) gender edu ft grobal major;
ANALYSIS: TYPE = MIXTURE;
```

www.kci.go.kr

<부록>

1.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나 여가활동을 함께한다.
2.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4.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5.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6.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사교적이 될 수 있다.
7.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8.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한다.
9.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때 쉽게 당황한다.
10.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때 자신감이 있다.
11.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그 나라의 말로 대화하는 것이 적극적인 편이다
12. 나는 다른 문화나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즐긴다.
13.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14.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때 매우 사려 깊은 편이다.
15.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보람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16.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존중한다.
17.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때 그들에 대해 많이 알려고 노력한다.
18.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19.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방이 보이는 미묘한 말과 행동에 민감한 편이다.
20. 나는 나의 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보다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www.kci.go.kr

21.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2.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
23.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말 또는 몸짓이라도 표현하려고 한다.
24.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한다.

※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이다.
※ 원판은 총 9문항의 역문항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번안되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된 도구는 총 8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사 타당화를 시킨 한국판 검사문항을 따랐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classifying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types of college student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nd exploring what variables affect the type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231 college students in the Gyeongsang-do area from June 22 to 30, 2020, and a total of 226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latent profiles were derived and named as active type (37.6%), moderate type (41.5%) and passive type (21.2%),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to intercultural sensitivity by latent type group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gender,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 relationships, or majors when the moderate and passive type groups were compared with the active type group as a reference group. Rath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ducational experience. Second, students with no cultural education

www.kci.go.kr

experience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passive or moderate type than the active type. Third, students with no overseas training experience were also more likely to be classified into the moderate type than the active typ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ollowing: It expanded the understanding of and discussion on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college students by using a person-centered approach. And its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plans tailored to college students be established and differenti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the types be set up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Key Words : 문화간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대학생(college students)

www.kci.go.kr

www.kci.go.kr